

온택트 시대...한·중·일·영 '왕인'으로 소통하다

영암군, 비대면 글로벌 왕인 홍보단 'W-프렌즈' 참가자 모집 다음달 5일까지 총 50명 선발...왕인문화축제 홍보 활동 수행

영암군은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2021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빛내줄 글로벌 왕인 홍보단 'W-프렌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택트 시대, 비대면 콘텐츠를 발굴하여 참여하는 '왕인' 홍보단 'W-프렌즈'를 창단함으로써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집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한·중·일·영권 내국인 및 유학생 등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은 온라인 홍보 효과를 위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팔로워 수를 기준으로 한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주어진 미션에 따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 등 영암왕인문화축제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선정된 서포터즈에게는 활동비 지급, 활동우수자 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방법은 군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gfnwfriends@gmail.com)로 제출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3월 5일 개별 통보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온라인 서포터즈는 비대면 홍보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영암왕인문화축제와 영암을 홍보하여 영암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파하게 된다. 한편, 2021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는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축제 홈페이지(www.왕인문화축제.com), 유튜브 채널 ('영암왕인TV')을 통해



즐길 수 있으며, 대표 프로그램인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오!', 공개방송 영암온에어'즐거우

후 2시'등 2개 부문 1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갯벌낙지 목장 조성 '박차' 9천만원 투입 3개소 추가

무안군은 낙지 자원량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9000만원을 투입하여 갯벌 낙지목장 3개소 9ha를 추가 조성한다. 무안군 해역에는 2015년부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낙지목장 5개소 42ha를 조성했고, 군에서 2018-2019년 10개소 50ha를 조성하여 올해 3개소 9ha를 추가 조성하면 총 18개소 101ha로 면적이 확대된다.

낙지목장 조성사업은 지역 어업인들이 낙지목장 시설과 낙지자원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낙지 산란기인 3~6월에 성숙한 암수 낙지를 매입하여 한 쌍씩을 수조 내에 교접시킨 뒤 마늘어장 내 조성된 갯벌낙지목장에 포란된 어미낙지를 방류해 산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낙지목장 조성을 희망하는 어촌계를 19일까지 모집하고 6월 21일 금어기 전 낙지 교접·방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이후 사업혜택 어촌계에서는 방류된 낙지가 갯벌에서 부화할 때까지 낙지목장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포획을 금지하는 등 자율적인 자원관리에 나서게 된다.

남획과 수온 상승, 생태계 변화 등으로 감소 추세였던 낙지 생산량은 무안군과 관련기 관에서 시행하는 낙지목장사업으로 매년 증가하여 어가 소득에 기여하는 우수한 사업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무안군은 낙지목장과 어미낙지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고 자원관리를 강화하여 낙지 자원회복을 지속화할 계획이다. 무안=이성기기자

목포시, 주전부리 상품화 위해 판매업소 간담회 개최



목포시가 주전부리의 상품화를 위해 판매업소와 지혜를 모았다. 시는 19일 간담회를 개최해 16개 주전부리 판매업소와 상품화 방안에

16개 판매업소·상품화 방안 대해 의견 교환 상표 부착·위생관리·적정 가격 판매 등 당부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주전부리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상품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슬로시티 특산물 브랜드 상표 취지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 가운데 특히 시는 판매업소에 목포시가 자체 개발한 주전부리 레시피 이용 제품 생산·판매, 시에서 승인한 상표 부착·판매, 위생 관리, 적정가격 판매 등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해 목포의 역사성을 살려 목화를 모티브로 한 목화솜빵, 목포의 시목인 비파를 활용한 비파다쿠아즈, 목포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새우를 활용한 맛김새우집 등 3종의 주전부리를 개발했다.

이후 1,2기 판매업소를 모집해 레시피 기술 전수교육, 상표등록출원, 론칭이벤트 등을 실시하며 주전부리의 보급과 인지도 향상에 힘써왔다.

시 관계자는 "판매업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전부리가 목포의 관광 상품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온·오프라인, 미디어마케팅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차별화된 포장패키지를 개발해 상품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목포시, 코로나 수칙 준수 속 실내수영장 개장

셔틀버스 미운행,

목포시가 코로나19로 휴장 중이던 목포실내수영장을 19일부터 개장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수영장을 개장했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는 ▲수영장 내(물속 포함)에서 최소 2m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신체접촉 및 대화 자제 ▲샤워장, 탈의실 거리 유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발열 체크를 통해 유증상자의 입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문자 기록 등을 통해 입장자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 수영장 방역을 위해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 소독, 환풍, 물 정화시간 등을 운영한다. 실내수영장 셔틀버스는 버스 내 거리두기가 어려워 운행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행 여부는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또한, 수영강습은 강사와 강습생의 신체 접촉 및 대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별 자유 수영만 운영하며, 강습회원도 모집하지 않는다. 김정환기자

영광군, 비대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군민 호응'

벼·콩·고추·딸기 4과정 진행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중인 2021년 비대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영광군은 올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온라인)으로 추진중이며 지난 2월 1일부터 유튜브 영광군청 및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채널에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벼·콩·고추·딸기 재배기술에 대한 4과정으로 진행되며, PLS제도·화상병 예방 등 농사에 필요한 교

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예년 1,000명의 농업인들이 참여했던 실용교육은 현재 2,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힘든 상황에도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농업인은 금년 품년농사를 위한 교육인 만큼 2월말까지 반드시 강의를 시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군민은 유튜브 홈페이지



지 혹은 유튜브 어플 접속(https://www.youtube.com/영광군청) 혹은 영광군농업기술센터'검색' 후 시청할 수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일 활력 넘쳐

코로나19 방역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적한 임대료
함양2지구 상가 상인회

친환경 마스크